

2018년 12월 15일 한외사연구회

아극돈 외 5 저 『사조선록 역주5』 김한규 역, 소명, 2012.

발제1. 아극돈 <동유집>, <봉사도>

주연정

## ◎ 아극돈의 <동유집>과 <봉사도> 해제

- 아극돈(1685-1756)

- 강희 48년에 진사(進士)가 되어 서길사(庶吉士)로서 편수(編修)의 직을 받았음.
- 강희 52년에 河南 향시고관(鄉試考官)이 되었음.
- 강희 53년에 황제가 아극돈의 학문이 뛰어나고 과거를 주관해서 명성을 얻었다 하여, 시강학사(侍講學士)로 특별히 발탁함.
- 강희 55년에는 시독(侍讀學士)이 되었음.
- 강희 56년에 조선에 사신으로 다녀옴.
- 詹事로 승진했다가 강희 57년에 내각학사로 발탁되었음.
- 강희 61년에 정사로 조선에 다녀온 뒤 병부시랑(兵部侍郎)으로 발탁됨.
- 옹정 원년에는 한림원장학사, 『國史』 『會典』 부총재에 충임.
- 옹정 3년에 영조를 책봉하기 위해 조선으로 출사. 예부시랑(禮部侍郎)이 되어 병부시랑과 겸직.
- 옹정 4년에는 국자감(國子監) 좌주(祭酒), 양광총독의 서리가 되어 광주장군(廣州將軍)을 겸하였음.
- 그 뒤 사부시랑으로써 광동순무와 광서순무를 서리(署理)함.
- 옹정 9년에 준갈이를 토벌할 때 내각액외학사가 되어 군사에 대한 사무를 보았고, 건륭 3년에 다시 준갈이에 사신으로 가서 경계에 대해 논의했다.
- 이후 공부, 형부 사부의 시랑을 하다가 건륭 11년에 형부상서가 되고, 13년에는 협판대학사(協辦大學士)가 되었다. 14년에는 태자태보(太子太保)를 더하였고, 좌부어사(左部御史), 보군통령(步軍統領)이 되기도 하다가 20년에 퇴직, 21년에 세상을 떠남.

- 아극돈은 전후 4차례에 걸쳐 조선에 사신으로 다녀감.

- 1차: 강희 56년(1717: 조선 숙종 43년). 숙종의 눈이 아파서 사신을 보내 공청을 구했는데, 아극돈이 황제의 명으로 조선 왕에게 가져다줌. 9월 18일에 사명을 받들어 10월 19일에 압록강을 건넜고, 27일에 한양에 다다랐다가 11월 5일에 귀국.
- 2차: 황태후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고부사의 자격으로 출사. 1차 사행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다시 조선으로 출발하여 강희 57년(1718) 정월 4일에 한양에 도착, 나흘 체류.
- 3차: 경종이 아우 금을 세제(世弟)로 세우게 해달라고 청해서 강희 61년(1722: 경종 2년)에 내각학사(內閣學士)의 신분으로世子冊封使로 조선에 갔음. 5월 27일에 한양에 도착했다가 6월 4일에 귀국길에 오름.

- 4차: 옹정 3년(1725: 영조 원년)에 경종에게 사제(賜祭)하고 영조를 책봉하기 위하여 출사. 이 때 아극돈은 부사였음. 12월 19일에 출발했으나 정사가 도중에 병이 나서 다음 해 3월에 한양에 도달.
- <동유집>은 아극돈이 세 번째로 조선에 다녀간 뒤에 28수의 시를 골라 스스로 편찬한 것으로 『덕음당집(德蔭堂集)』(1778)에 수록되어 있음.
- <봉사도>는 아극돈이 네 번째 조선을 다녀온 뒤에 제작. 1725년 6월에 정여가 그림을 그리고 <동유집>에 수록된 시문을 그 좌우 상단에 써넣어 책으로 만들어졌으며, 같은 해 12월 2일에 왕주가 제자했다.
- <봉사도>의 구성(20폭의 그림, 각 그림 상단에 <동유집>에 실린 28수의 시를 차례대로 분배하여 기재). 奉使의 과정을 정밀한 그림으로 전해주는 문헌으로 당시 조선 외교 의례와 조선의 민속 등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.
  - 첫 번째 그림에는 아극돈의 초상
  - 압록강을 건너는 그림과 사행 도중에 본 광경과 풍속
  - 도성과 왕궁의 그림
  - 산수 풍경의 그림
  - 영접과 책봉 의식
  - 연회
- <봉사도>의 「序詩」와 「跋文」「後詩」에는 고위관료와 당대의 저명한 서화가(書畫家)들이 포함되어 장관을 이루었음.

### <동유집(東遊集)> 아극돈 저

『德蔭堂集』 卷6

「도성을 나서며」(봉사도 그림 1)

- 황제의 명과 천자의 은혜에 대한 표현
  - “제성(帝城, 황제를 상징하는 별)에 낀 짙은 연무에서 미세한 티끌 떨어지는데, 황화(皇華)를 읊고 싶어도 재주 없어 부끄럽다.”
  - “이번에 가는 海東은 관문 요새의 바깥이니, 雨露같은 은혜 받들고 하늘에서 내려간다.”

「봉황성(鳳凰城)」(봉사도 그림 2)

- 사행길이 內地와 같지 않음을 기록.
  - “베를 펼쳐 장막 만들어 간신히 햇볕 가리고, 띠를 묶어 집 만들어도 바람 견디지 못한다.”

「압록강을 건너며. 2首」(봉사도 그림 3)

- 조선으로 길을 들어 조선의 사신단 대접과 주변 풍경에 대한 묘사.
- 故國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조선을 역사가 오래된 나라로 지칭.
- 압록강의 변경이 안정되어 있음을 기록.
  - “길손 대접하는 술잔과 쟁반에 알기 어려운 것 적잖으니, 비바람이 몰아쳐도 고국의 정

은 그래도 깊다.”

- “오래 동안 힘을 써서 천연의 해자(국경의 역할을 하는 긴 강) 견고하니, 오늘은 변경 소식 많지가 않다.”

「길 가다가 즉흥으로 읊다」(봉사도 그림 4, 5, 6, 7)

- 이동하는 길에 겪는 여러 의식(제사, 이동대열)
- 길가면서 만난 조선인과 조선인들의 삶의 모습.
  - 사신단이 지나갈 때 조선인들이 모두 땅에 엎드려 공경을 나타냄.
  - 조선인들은 또한 환호하며 천자에게 축원도 하였는데, 조선인의 말을 통역하여 알아듣고 정이 깊어지고, 천자의 은혜가 널리 다다름.
  - 인가의 태반이 산 가까이에 위치해있고, 집은 초가집.
  - 행차길에 갖가지 놀이들이 벌어지는 모습.

「임진강」(봉사도 그림 8)

- 임진강의 화석정에 대한 언급. 조선인들이 이곳에 살았던 은거자(울곡 이이)를 기리고 있음.

「객관에 가서 즉흥으로 읊다」(봉사도 그림 9)

- 조선의 관청과 관습이 고구려의 전통과 연관되어 있음을 명시.
  - “언어를 대충 알아 중화를 전하는데, 관청은 흥려로서 옛날엔 대가(大加, 고구려 벼슬)였다.”
  - “가죽신과 풍건(風巾, 두건이란 뜻으로 折風이라는 고구려식의 옛것을 따름)은 옛 것을 따랐으니, 낫선 고장 이곳에 머물며 잠시 머뭇 서성인다.”

「총수역의 옥류천을 제하다」(봉사도 그림 10)

「도성(都城)」(봉사도 그림 11)

- 조선의 몇몇 큰 성들은 다른 읍에 비해 번성했음.
- 조선 아녀자들의 아름다움.

「도중에 봉산에서 잠시 머물며, 빗속에서 산행과 산리, 두건을 보다」(봉사도 그림 12)

「평양 연광정에 올라」<명대 使人(주지번)이 편액(扁額)에 題하여 ‘第一江山’이라고 했다> (봉사도 그림 13)

- 대동강의 절경에 대해서 주지번을 받아 극찬하고 있음.
- 주지번이 대동강의 흥에 올라 ‘천하제일강산’이라는 글자를 써서 편액을 걸었는데, 정축년(1637) 청황제가 회군하는 날에 중원에 금릉과 절강이 있는데 이곳이 어찌 제일일 될 수 있냐면서 주지번의 편액을 부수도록 명하였지만, 훌륭한 글씨를 아깝게 여겨 ‘천하’ 두 글자만 없애도록 했다는 일화가 있음.

「자수(소나무 품종)를 읊다」(봉사도 그림 13)

- 대동강 가의 자수 숲의 경치.
-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

- “듣기에箕子때부터 몸소 심었다 해도, 천년 백년 지나서도 여전히 무성하다.”

「즉흥시」(봉사도 그림 14, 15, 16)

- 天書를 전달하는 의식과 의례. 천자의 경건함과 조선의 예우가 융숭함을 설명.
  - “원추새 반열 늘어서서 경건하게 우러러 절하는데, 오색의 천서(天書)가 진홍빛 하늘에서 내려왔다.”
  - “결채해서 송례문에 높이 내걸고… 길 깨끗이 하여 天使를 맞이하고, 번궁(藩宮, 조선 왕 지칭)으로 이끌어 들어가니 예우가 더욱 높다. … 마음으로 皇恩에 감사하며 특별한 대우 융숭하다.”
-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언급.
  - “고구려 사람은 무사에서 뛰어나다 자칭했으니, … 주몽이 果下馬 땀다고 전해진다.”

「관사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읊다」(봉사도 그림 17)

- (조선을 포함) 동번지역이 제후국임을 명시.
  - “동번은 땅을 받아 諸侯 지위에 올랐는데, (조선 국왕이) 흰 깃 죽간에 이름 써서 내사 시켜 보내었다.”

「연회의 정성」(봉사도 그림 18)

「의주의 馬尾山」(봉사도 그림 19)

「압록강 건너 돌아오며」(봉사도 그림 20)

- 조선 대신들이 환송했으며, 조선의 경계 압록강을 건너 돌아감.

#### <발문>

##### 1) 왕조부의 발문

- 아극돈과의 관계 및 그의 정치적 삶과 조선 사행에 대한 소개
- 산천, 인물, 습속, 예의 등 조선에 대한 견문 묘사를 극찬.
- 조선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
  - 조선은 기자 이래로 그 기풍이 아직도 고대에 가까운 것이 있으니…
  - 우리 태종 문황제께서 그 왕도를 깨뜨리고 추격하여 남한산성까지 이르고 그 처자를 강화도에서 사로잡았지만, 끝내 그 사직을 封해 주었으니, 지금까지 오래도록 천조(天朝, 천자의 조정->청)에 고맙게 여기고 있다.
  - 그래서 칙사가 그 지경에 이르면 그 나라 朝臣들이 절하며 무도(舞蹈)하고, 그 사인들과 부녀자들은 땅에 엎드려 공경을 표한다.
- 아극돈에 대한 칭송과 조선에 대한 청의 은혜를 강조하며 이러한 자신의 글이 책 끝에 실릴 수 있도록 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.

##### 2) 장형의 발문

- 아극돈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동유집의 발문을 쓰게 된 경위를 설명.

### 3) 왕주의 발문

- 아극돈의 시문을 통해 한번 도 가본 적이 없는 고구려의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음. 조선을 '고구려'로 명명.

## <봉사도(奉使圖)>

### <서시(序詩) 및 서문>

#### 1) 우민중

- 20쪽의 그림에 들어가 있는 아극돈의 시문들에 차례대로 화답하는 형태로 시문을 남겼음.
- 아극돈의 시문과 그림을 그대로 이어받아 조선의 풍물을 묘사.
- 아극돈의 사신으로서의 능력(천자의 뜻을 전달, 조선의 풍습 수집)을 높이 우러름.
- 중화의 태평성대가 조선에까지 미쳤음.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도 보여주고 있음.
- 양국의 역사적 관계(漢이 강조되고 당, 송 모두 언급)와 청조의 존엄성 강조
  - 한 대에는 관하(關河)가 요외(徼外)에 이어졌고, 당의 공업은 온 천하에 드러났다.
  - 지금의 거룩한 덕택은 끝없이 드넓으니, 두 번이나 은혜로운 조칙 받들어 패수(溟水, 고조선 때의 강 이름, 국경을 이루고 있는 압록강 혹은 청천강이라는 설이 있음)의 동쪽 갔다.
  - 당, 송 이래로 길에 공물이 끊어지지 않았지만, 이번에는 성조(聖朝->청조)의 존엄을 더욱 잘 알고 있다.
  - 성조의 은덕이 온 천하에 두루 미쳐...
- 조선의 용맹함(?)
  - 조선의 무비(武備)는 강건하고 용감함을 다투니, 왼편에는 긴 칼 벌이고 오른편에는 큰 활 벌였다.

#### 2) 추일계

- 아극돈의 시문과 봉사도의 그림을 통해서 夷人(->조선)의 정황을 또렷하게 알 수 있게 되었음.
- 조선 임금의 공경함을 표시하는 모습을 강조하면서 청과의 정치적 관계를 보여줌.
-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음.
- 번국으로써의 한반도와 오랜 역사를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냄.
  - 한반도는 일찍이 덕화하여 귀속되었고, 예의와 교화로써 번봉을 지켜 띠와 숫돌처럼 길게 이어졌다.

#### 3) 개복

- 조선의 기원을 기자에 두고 있지만, 한의 郡으로써의 東國의 역사를 명시.
  - 기자가 책봉 받은 곳은 지금의 東國이니, 낙랑과 원도(한이 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네 군 가운데 하나인 현도군을 지칭. 다른 세 군은 낙랑군/진변군/임둔군) 등 한 대의 군이 뒤따랐다.
- 청의 천하통일의 존엄성과 조선의 복속.
  - 거룩한 청이 천명 받아 천하를 통일하자, 그 땅은 가장 앞서 복속했다 칭송되었다.

#### 4) 동방달

- 천자와 청의 은덕이 변방까지 미쳐가고, 주변의 제후국(여진, 티벳, 낙랑)들이 모두 찾아와 공물을 바침 -> 조선을 한의 郡으로 인식
  - 흥려가 구빈을 늘어세우니 속국(屬國) 가운데 낙랑이 으뜸이었다.
  - 명이(明夷)는 성인이 봉지(封地)를 연 곳이고, 예맥(濊貊, 요동지역의 역사공동체)은 한 대에 강역으로 개척됐다.
- 조선을 고구려로 인식하고, 이름이 대대로 일정하지 않았으며, 현재는 이씨가 통치하고 있음.
- 중원으로써의 청을 한과 동일하게 보고 있음.
  - 한 대에는… 이것으로 사방의 변방을 제압할 수 있어, 감싸도는 은하수에 몸 굽혀 귀부했다. 바야흐로 지금은 조정 책략이 원대하여, 중외가 모두 안정되고 편안하다.
- 아극돈의 조선 사행에 대한 언급

#### <발문>

##### 1) 공통적인 내용

- 천자의 덕화(조선에 대한 은덕)와 아극돈의 교화, 사행 기록 작업에 대한 칭송
- 조선으로 향하는 사행길. 조선의 영접과 사대의 예우를 묘사.
- 조선을 속국(屬國)으로 표현

##### 2) 팽방주

- 아극돈의 작업이 중국 내 지식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.
  - “…천하의 지도를 관장했는데, 지도와 책은 모두 중요하다.”
  - 한, 당 이래로 중국 바깥 지역의 책으로는 오직 조선의 것이 가장 많았으며, 예컨대 정인지의 『고려사』와 신숙주의 『해동제국기』 및 『동국통감』 등은 모두 불만한 것이다.
  - 중국에서 편찬된 것으로는 송대 서공이 지은 『고려도경』이란 책이 있는데 … 그림은 잃고 글만 남아있다. … 阿父께서 수고하여 만든 이 그림을 보니, 서공의 책에서 결락된 부분을 보완하기에 충분하다.

##### 3) 진세관

- 천자의 사신이 출사하는 경위와 관련하여 번국 조선에 대한 역사적 인식
  - 萬國이 덕화를 입었지만, 그 가운데서도 으뜸인 번국은 조선이다.
  - 기자의 옛 땅 이어 봉해졌으니… 공손하게 순종함이 대대로 드러나고,
  - 희조(熙朝->청조)가 열려 창건된 초기에 가장 먼저 덕화에 귀복했었다.
  - 여러 번 책봉받으니, 언제나 성초(星招, 천자의 사신이 탄 수레) 보내 빈번하게 왕래했다.
  - 성이 높아 원도(한 의 郡 중 하나)를 두루 살펴보고…

##### 4) 장부

- 조선에 대한 인식-> 속국, 고구려
  - 조선은 속국(屬國)이 되었으니…
  - 날아갈 듯 가볍게 折風 두건(고구려식 두건) 쓰고, 느릿하게 果下馬(주몽이 탔다는 말)를 모두들 탔다.

5) 문공공, 양시정

- 청이 주변을 모두 통틀어 합하는 천하에 대한 부분
  - 속국에 행차함에 부끄러움이 없고, 이웃 이역(異域)을 복속시킴에 도가 있었다.
  - 우리 조정이 안팎 구별 않고 교화로 다스리니, 산과 바다 감싸고 아울러서 제봉(提封, 강역)을 자랑한다.

6) 심덕잠

- 청의 조선인식
  - 기자의 나라인 조선은 周代부터 순종하며 공물을 바쳐왔다.
  - 천자의 덕과 황명이 전해지는 것은 조선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.

7) 석진

- 唐代의 진대덕이 고구려에 사신으로 갔지만 圖說이 전해지지 않고, 宋代에는 서공이 있었지만 그림이 없어졌음. 아극돈의 <봉사도>는 당송대의 문예를 능가하는 업적임을 평가함.

8) 아악례(아극돈의 7대손)

- 아극돈의 초상을 제1폭에 넣어 <봉사도>가 총 20폭의 그림과 여러 편의 詩詞로 구성됨을 소개.
- 자신에게 <봉사도>가 들어오고 보관하게 된 계기를 설명.
- 이후 200년 뒤까지 완전무결하게 남아있고, 당시 9대손이 이어서 보관하고 있음을 기록하며 <봉사도>의 귀함을 입증하고 있음.